

전남도·민주당, '쌀값 안정·특별자치도' 힘 모은다

예산정책협의회 개최...김영록 지사, 정책 4·법률 5·국비 12건 건의 국립의대 설립·재생에너지 4법 제정 등 현안 해결·국비 확보 등 논의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 시장 격리와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를 통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현안 사업을 계획 기간 내 완공할 수 있도록 국비 증액이 절실합니다.”

전남도가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과 정책·법률 지원, 국비 확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남도는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도·더불어민주당 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정 예결위원장,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 이개호·서삼석·조계원·김문수·권항열·문금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4건의 정책, 5건의 법률·제도, 12건의 국비 사업 등의 지원을 건의하고 협조를 구했다.

김 지사는 특히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2024년 산 신곡 쌀값이 20만원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

공비축미 외에 선제적 시장격리 등 정부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에너지·관광·농어업 등을 활용한 독자적 정책 모델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지만 권한 부족 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다”면서 실질적 자치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건의했다.

호남권 미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의 필요성과 국비 확보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8년 연속 1조원 이상 확보했던 전남 SOC 예산의 경우 내년 정부안에는 전년도(국비 8645억)에 견줘 41.8%가 감액된 5466억원만 국비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고 도로·철도 등 계속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한 예산 증액(2348억원)을 요청했다.

이외 전남 국립의대 설립,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 지정,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재생에너지 4법’ 제정,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의 지원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지사는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에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 미래 100년을 책임질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쌀값 인상, 출생 기본소득 등 전남의 핵심 현안사업이 민주당의 브랜드 정책과

일치한다”며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도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R&D 예산 1955억원 확보...미래 성장 가속화

연구·개발 신규 국비 대거 확보

전남도가 2025년 정부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에 지역 미래 성장동력인 핵심 전략사업 등 국비 1955억원을 확보해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총사업비는 2592억원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 기술개발비 24억원이 반영돼 배터리 안전관리 평가 기술 개발을 통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선순환

생태계 조성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디지털바이오 스마트 임상 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개발 사업 35억원을 확보해 첨단신약 개발 기업에 맞춤형 임상 지원을 제공하고, 신약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된 화순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과거 연구개발 분야에 불모지로 여겨졌으나, 매년 연구개발기회사업을 통해 국정과제나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유망 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연구개발 국비 확보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연구개발 투자는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남의 미래를 짊어질 후속 세대가 지속해서 성장하는 등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대학·연구원 등 지역 혁신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연구개발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 전통시장서 추석 장보기 행사

상인 격려·애로사항 청취

김영록 전남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남 전통시장을 돌며 장을 보며 상인들과 만났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9일 영광터미널 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을 격려하고 장보기 행사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광양시장(11일 오전 11시)~화순고인돌시장(13일 오전 10시) 등을 잇따라 찾아 상인들과 만나는 명절 장보기 행사를 펼친다.

김 지사는 영광터미널시장에서 물가관리와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하고 번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을 찾은 이용객들과도 덕담을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그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농업박물관 어린이 체험공간 '인기'... '핫플레이스' 부상

스탬프 투어·그림그리기 등...한 달 동안 1천여명 찾아

전남도농업박물관이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농업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신선했던 어린이 체험 공간과 프로그램이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농업박물관은 지난 8월 초부터 농경문화관에 어린이 체험부스를 마련하고, 농경문화와 박물관 전경 등 그림을 그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그림을 그려 제출하면 선별해 연달 그림 전시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박물관은 상설전시관 3곳을 모두 관람하고 인증하면 '씨앗 새싹 연필'을 무료로 나눠주

는 '스탬프 투어'를 진행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스탬프 투어는 시행 한 달 만에 어린이를 비롯한 초·중·고교생 1000여 명이 찾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김옥경 농업박물관장은 “최근 박물관 활성화 차원에서 농경문화관에 어린이 체험공간을 별도로 신설해 관람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전남도농업박물관이 '농도' 전남을 대표하는 전국 최대 농업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업박물관 어린이 체험공간- 그림그리기. <전남도 제공>

어린이 무료·청소년 반값... '광주 G-패스' 내년 시행

광주시 'K-패스'에 추가 지원

6세부터 12세 어린이 시내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 이용 요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광주형 대중교통 지원 사업 '광주 G-패스'가 내년 1월 시행된다.

광주시는 9일 광주교통공사와 '광주 G-패스 시행을 위한 정산 업무 등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교통공사는 교통카드 단말기 조정 등 준비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광주 G-패스'는 시내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를 6~12세 어린이는 무임으로 이용 가능하며 청소년은 50% 할인한 4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19~39세 청년은 30%, 성인은 20%, 어르신은 50%, 저소득층은 64%를 환급받을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성인은 'K-패스'와 연계해 정부 지원에 더해 광주시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해 등록하면 내년부터 교통카드 단말기에 접속하는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19세 이상 성인은 우선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https://korea-pass.kr)에서 회원 가입하고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일 다음달에 돌려받는다.

이미 K-패스를 발급·등록한 광주시민은 올해 정부 K-패스 지원율에 따른 혜택을 받고 내년부터 별도 절차 없이 광주 G-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환수 목사
(광주겨레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4. 9. 9(월) ~ 13(금) · 전형일: 2024. 10. 7(월)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330로 36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